

저축은행, 3분기 '깜짝실적'... 대손충당금 순익 전환 효과

전국 저축은행 79곳 순익 200억 NPL 매각, 충당금 순익 전환 영향

여신잔액은 22개월 연속 하락세 업황개선 위해 기준금리 더 내려야

주요 저축은행이 3분기에 흑자를 기록해 향후 업황개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실채권(NPL)을 털어내고 그동안 쌓아놓은 대손충당금을 순이익으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저축은행 79곳이 2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거뒀다. 지난해 저축은행은 555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다 올 상반기에도 380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만큼 하반기 전망 또한 어두웠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깜짝 실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신 잔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저축은행이 3분기 흑자를 거두면서 업황이 개선되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중앙회

따르면 지난 8월 저축은행이 조달한 자금은 100조956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은 6개월 만에 반등한 이래 감소 흐름이 이어졌으나 5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처럼 저축은행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NPL 매각 때문이다. 기간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연체율 상승 탓에 대손충당

금을 적립하면서 순이익에 악영향을 줬다. 부실 사업장 매각을 통해 순이익 확대와 건전성 제고에 힘썼다.

남은 과제는 그동안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순이익 전환이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쌓아놓은 일종의 적립금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해야 하는 충당금 비중이 높아진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저축은행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6조2285억원이다. 각각 3조9000억원, 2조3285억원씩 쌓았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채권매각 속도가 빠를수록 대손충당금 환입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 전망이다. 채권을 매각한 분기 각 사별 포트폴리오 론과 영업 기조가 분수령이다. 현재 저축은행의 NPL 발생 원인은 PF가 절대적이지만 각 사별 영업 정책에 따라 특정 대출의 연체 비중이 높을 수도 있는 만큼 각 사별 매각 방식이 순이익 확대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별로 금리 인상기에 취약해진 대출 분야가 있어 PF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담보대출이나 신용·가계대출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실적 반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쌓아놓은 충당금 순이익으로 전환했을 뿐 대출 영업이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저축은행의 여신잔액은 96조5929억원이다. 22개월 연속 하락세다. 다음해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 업황 개선을 위해선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요구된다. 영업 재개를 위해선 조달비용 절감이 우선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차례 낮췄지만, 저축은행의 조달비용은 증가세다. 이달 저축은행 79곳의 정기예금(1년물) 평균금리는 연 3.69% 직전 달(연 3.66%)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충당금 환입도 중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영업 확대"라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달비용이 많이 내려갔지만 원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대우건설, 투르크서 1조 규모 비료공장 수주

중양아시아 지역 첫 진출 쾌거 미네랄 비료공장 프로젝트 낙찰

대우건설은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약 1조원 규모의 '미네랄비료 플랜트' 프로젝트의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된 미네랄 비료공장 프로젝트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 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져 있는 투르크 제 2의 도시 투르크메나바에 위치한 '투르크메나바 미네랄 비료 플랜트'다. 연산 35만톤의 인산비료, 황산암모늄 연산 10만톤의 생산설비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이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의 정확한 공사 금액 및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낙찰자 선정을 통해 신규 시장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본격 진출하며 중양아시아 지역에 첫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다. 대우건설은 이번 프로



지난 2022년 11월 대우건설 정원주 회장(왼쪽)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를 예방하고 있다.

/대우건설

젝트를 통해 현지 시장을 적극 개척해 향후 석유화학 및 비료관련 사업의 추가 기회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신도시개발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신규사업 발걸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우건설은 향후 친환경 위주의 다양한 솔루션을 투르크메니스탄에 제안해 협력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특히 이번 낙찰자 선정의 성공 뒤에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공식방문 시 본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과 9월 박상우 국토부장관의 현지방문 지원요청 등 보이지

않는 정부의 노력과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은 2022년 11월 방한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과 회담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을 세 차례 직접 방문하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최종 프로젝트 낙찰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脫서울 행렬에도 강남권 수요는 여전

송파·강남 등 인구 순이동 증가 가락·잠실동 위주 집값 상승세

탈서울 움직임에도 강남권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21일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자료(8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순이동수는 3848명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강남 권역은 서울 전체와 다르게 순이동이 지난 8월에 플러스(+)를 나타냈다. 특히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가락·잠실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매거래가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 서울 외 지역민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서울 아파트는 송파구(291건)에 위치했다. 강동구가 242건, 성동구가 231건으로 뒤를 이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최근 강남권 내 청약 열풍과 지난 2~3분기 서울 집값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상급지 갈아타기를 염두에 둔 서울 입성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방이 올해 서울 소재 집합건물을 매수한 총 1만9343명의 경기·인천 거주자들을 분석한 결과 역시 강남권 매수자 비중이 높았다.

분당 거주자들이 1220명으로 가장 많이 매수했다. 송파구가 175명, 강남구 174명, 서초구 139명, 강동구 105명 순

이다.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더해지며 강남권 매수자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거주자 비중이 많았던 지역은 남양주시(1174명)다. 거주자들이 많이 매수한 서울 자치구는 강동구(146명), 성동구(139명), 중랑구(133명) 순서였다. 강동구의 경우 지난 8월 지하철 8호선 별내역 연장으로 남양주시와 접근성이 쉬워져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남부권인 하남시(902명), 화성시(877명)도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가 많은 편이다. 하남시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강동구(283명), 송파구(155명)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비중이 높았다.

동탄신도시 등 지역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강남권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연구 시설 등 대기업이 자리한 지역으로 고소득층의 강남권 투자 구매도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만 양극화 이슈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램장은 "가격 하방경직성이 견고한 상급지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그렇지 못한 지역의 집값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역간의 온도차이는 당분간 계속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자 최대 300만원 생활비 지원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 중위소득 100%이하 피해자 대상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제로'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제로'는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함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전 국민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300억원을 후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작년 10월부터 진행된 1차 사업에서는 ▲취약계층 피해자 총 2300명 대상 총 64억원 생활비 지급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367건 ▲심리상담 26건 ▲예방교육 232회(총 5642명)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무료보험 지원 926건 등 피해자 지원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2차년도 사업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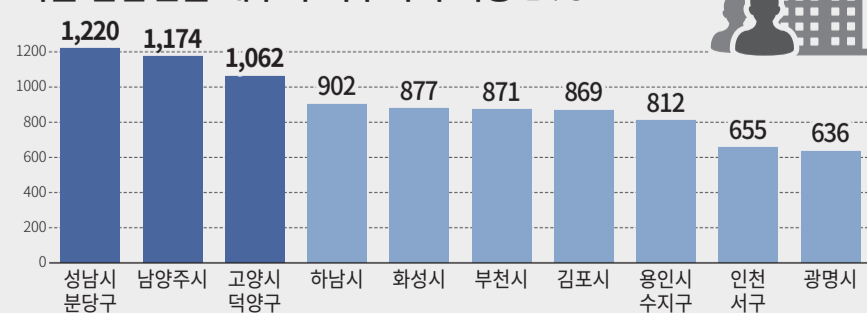
중위소득 100% 이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상담 및 민사소송지원, 심리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사회초년생·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무료보험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제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거주지역 비중 단위: 명



*2024년 1~9월 기준. 매수자 거주지역은 경기·인천에 한정하여 집계

자료/직방